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시험    제목: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성경:베드로전서1장  
6-9절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1:6-9)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호와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삼상2:3)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

가늠해 보신다. 가늠해 보시고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다시금 풀무불에 연단하시고 다시 가늠해 보신다.

-대개 이렇게 달아보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다만 잠잠히 지켜보고 계실 때가 있다. 순전히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선을 택하고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보신다.

-그러므로 점수를 만회하는지, 마귀를 현저하게 물리치는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지를 보신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옳은 아주 심하게 달아보신 경우다.

-옳은 모범적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였다.

-그러나 매우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다윗은 그만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다.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51:11)

-아브라함은 아슬 아슬하게 시험에 통과한 경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22:12)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11:17)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이겨 내셨다. 이것은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2:18)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알고 계셨다.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22:31-32)

34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눅22:34)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 눅22:31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청구하였다는 표현이 나온다.

-즉, 어떤 이유로 마귀는 이제 내가 시험해봐야 하겠다고 청구한다

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계속 미루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실 그 때에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 때를 정하신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이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잠잠히 지켜 보시며 돕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생각과 행동으로 과연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가늠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 나를 방치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시험의 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면 나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신다.

-정작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다. 네가 마귀와 귀신의 무리 가운데 둘러 싸여 있어도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과 싸우겠느냐?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고, 사람들도 너를 떠나갔을지라도, 심지어 너의 일가친척들이 너를 비웃고, 네 몸에 병이 들어 괴로움과 고통 중에도 그리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를 통쾌하게 이기는 것을 기대하신다.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1:12)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심지어 큰 고통 중에 있을 지라도,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재앙과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현저하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다.

-반면 아무리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자기 마음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누렸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일부러 불행할 필요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힘써야 하겠지만, 결코 불행의 순간에도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지는 말아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시험      제목: 영광스러운 치욕      말씀: 베드로전서4장12-14절

12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벧전4:12-14)

-시험은 곧 사명이다.

-내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서 당하는 시험이라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럽다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살면 더 부끄럽다.

-부끄럽다면 회개하고 내려가야 한다.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얼마든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어느 누구도 밑바닥에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비웃지 않는다.

-오히려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욕에서 영광을 일구어내는 자들이다.

-불 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 시험. 그러므로 지독스러운 시험. ‘하나님 너무 거셉니다’ 하지 말라. 이거 시험이 내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뭔가 잘못되었다고, 오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계산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갈 불을 내게 주지 않으신다.

-당연히 받자(당연히 받는 연습.)

-다행스럽게 받자. 마땅히 여기자.

-내 사명은 이 시험을 이기는 것.

-내 사명을 저주를 복으로,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9:3)

-그저 위로하고, 말대접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하신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사명을 알고 계셨다.

-내 사명은 남보란 듯이, 아주 행복하고 으리으리하게 원 없이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누리라! 없으면 없는 채로, 있으면 있는 채로, 부족함을 풍족하게 누리라!

-내게 엄청난 사명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시험을 이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

-주를 위해 희생하자. 주를 위해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획하고 연합하자. 주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주를 사랑하면서 힘을 쏟고 주가 원하는 것을 행하자.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일로 즐거워하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떳떳하게 참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내가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치욕스러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이것이 치욕 같아 보일지라도 영원한 영광이다.

